

북스

Books



카우보이-해군 제독-대통령-사냥꾼으로 이어지는 루스벨트의 인생 역정을 풍자한 삽화.

‘럭비공’ 미국 외교 어디로 튀나

카우보이들의 외교사 김봉중 지음

살든 좋든, 미국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한미 FTA, 미사일 발사나 핵과 같은 북한 문제 등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현안의 중심에는 항상 미국이 있어 왔다. 그리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에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실은 더 명확해진다.



‘카우보이들의 외교사’의 저자 김봉중 전남대 사학과 교수는 미국의 200년 외교사를 진단하고 있다. 저자는 미국의 건국 초기인 조지 워싱턴에서 출발해 존 애덤스, 토머스 제퍼슨, 제임스 먼로, 시어도어 루스벨트, 해리 트루먼, 존 F 케네디,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까지 미국의 외교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들의 인식을 짚어낸다. 책은 저자가 지난 2002년 미국 조지아 대학에서 ‘20세기 미국 외

교사’ 강의를 하면서 준비한 원고를 엮은 것이다. ‘먼로 독트린’으로 완성된 미국의 고립·중립주의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고별사에서 구체화된다. 또한 “그 어떤 그리고 그 어느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미국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했던 워싱턴의 외교 인식은 당시 미국을 사로잡았던 지식인 토머스

조지 워싱턴서 부시까지 200년 美외교정책 진단

페인의 책 ‘상식(Common Sense)’에서 기인한다. 페인은 “유럽 국가들의 세력 다툼에서 떨어져 미국의 참다운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의 외교정책은 초기 미국 외교의 원칙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중립노선이 깨진 것은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 이후다. 전쟁 승리로 미국은 힘을 과시하면서 중남미와 태평양으로 팽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 서

구 열강의 제국주의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것은 카우보이 대통령의 원형으로 불리는 루스벨트의 외교정책이 영향을 미쳤다.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의 외교정책에 어떤 원칙이 있는 것일까. 저자는 ‘없다’고 잘라 말한다. 그래서 어디로 튀지 모르는 ‘카우보이’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단어다. ‘주’의라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다. 외교관 국내의 상황에 따라 연속적이긴 하지만 질본 자체가 ‘우문(愚問)’일 수 있다. 그럼에도 저자는 세계 정세를 급변하게 만들었던 굵직한 역대 미국 대통령의 행동 곳곳에서 카우보이와 같은 성향을 읽을 수 있다고 말한다.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쉬운 문체로 풀어냈다. 책 곳곳에 있는 관련 사진과 인물 사진은 보너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미국을 단번에 파악할 ‘모범답안’을 찾진 말라고 당부한다. 오히려 책을 읽은 뒤 ‘미국의 어설피름’에 혼란스러워질지 바라라고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외교의 본질을 찾기 위해 시도했던 도식화 노력이 오히려 그 목적 달성을 방해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푸른역사·1만8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존 베렌트 대표작 2권 국내 번역 출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존 베렌트(John Berendt)의 ‘선악의 정원’이 국내에서 번역·출간됐다. ‘선악의 정원’은 지난 1994년 출간돼 전 세계 24개국 번역·출간, 4년5개월 동안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상위를 차지하기도 한 저자의 대표작. 저자는 이 책으로 1995년 풀리처상 논픽션 부문 최종 후보에까지 올랐다.

‘선악의 정원’은 미국 남부 조지아 주의 사베너(Savannah)를 무대로 펼쳐지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실제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와 그들 사이의 사건들이 소설 형식의 논픽션으로 꾸며져 있다.

이번에 한국어에서 동시 출간된 ‘추락하는 천사들의 도시’는 저자가 ‘선악의 정원’ 이후 11년 만에 내놓은 신작으로,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페니체(La Fenice) 오페라하우스 화재를 둘러싼 이야기다.

〈참고문헌·각권 1만3천원〉

관습차 통해 본 유럽 문화의 만화경

습관의 역사 피터 콜릿 지음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승리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V’ 사인은 그의 트레이드마크로 통한다.

그의 표현 방식은 ‘손바닥을 앞으로’ 하고 집게와 가운데 손가락을 벌려서 만든 ‘V’자였다. 그러나 처칠은 그리스에서 ‘V’자 때문에 당황스런 경험을 한다. 그리스 병사가 환영의 표시로 ‘V’자를 그렸지만 손바닥 방향이 문제였다.

그리스 병사는 손바닥을 ‘안으로’ 향하고 손등을 내보내 ‘V’자를 그렸다. 이는 영국인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모욕의 상징이다. 반면 그리스에서는 손바닥이 밖으로 향할 경우 가장 모욕적인 제스처가 된다. 결국 문화의 차이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의 한 예이다.

‘습관의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다 인종·문화와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시점에서 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문화지능을 한 단

계 업그레이드 해주는 문화 안내서다.

저자는 특히 유럽 각 나라의 문화와 습관을 주목한다. ‘왜 프랑스인들은 수다스럽고 영국인들은 과묵할까’, ‘독일인들은 왜 호칭과 직함을 유독 쟁길까’ 등에 대한 의문을 흥미로운 사례로 풀어준다.

유럽 대도시의 경우 18세기까지만 해도 웅변을 아무렇게나 버려서 온 도시가 역한 냄새로 진동했고, 근엄한 루이 14세가 번기에 앉아서 신하를 맞았다는 재미있는 문화사도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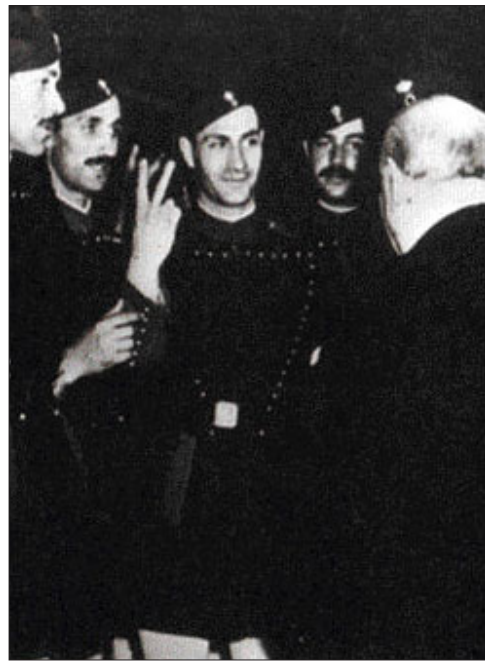
책은 ▲몸짓 습관 ▲사회적 관습 ▲습관의 역사 ▲언어적 특성 등 4가지 테마로 문화를 분류한 뒤 모욕의 역사, 화장실의 역사, 조롱의 유형 등을 비교문화적 시각에서 조명한다.

저자 피터 콜릿은 자칭 에피소드에 머물 수 있는 이같은 사실들에 대한 반대편 자료를 수집, 연구해 단순한 읽을거리 이상으로 끌어올려 놓는다.

습관의 역사를 살피기 위해 고대 그리스와 유럽의 도시를 누비는 저자의 발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유럽을 여행하는 듯한 착각이 든다.

〈추수밭·1만5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난 1994년 처칠이 그리스를 방문했을 때 그리스 병사가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 환영을 표시했으나, 사실 처칠은 물론 영국인들에게 이같은 표현은 모욕이었다.



▲어린 여행자 몽도=1978년 출간된 이후 재출간을 거듭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프랑스 작가 르 클레지오의 소설집이다. 광범하지 않은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순수하고 이상적인 세계를 그린다. 표제작을 비롯해 8편이 실려있다. 〈조화로운 삶·1만원〉

▲여행=1만2천킬로미터의 실크로드를 4년에 걸쳐 도보여행한 베르나르 올리비에의 여행기다. 전작 ‘나는 걷는다’로 큰 인기를 끌었던 그는 이번엔 여행길에 우연히 만난 수제자가 프랑수아 데르모와 함께 ‘수제화만 실크로드 여행수첩’을 펴냈다. 감상성 깊은 글과 그림이 인상적이다. 〈효형출판·9천800원〉



▲벌거벗은 삶=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맞아 그에 관한 책과 CD가 발매되고 있는 가운데 모차르트의 그녀, 아내 콘스탄체를 다룬 소설이 나왔다. 작가인 레이 장어는 그동안 악녀로 치부되어 왔던 그녀에 대한 명예 회복을 시도한다. 〈솔·1만원〉



▲서양금주의 문화사=프랑스 혁명과 ‘금서’와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 책으로 저자인 주명철 교수는 원사료를 직접 연구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를 중심으로 프랑스 혁명사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다. 〈길·3만원〉

▲D의 컴플렉스=프랑스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페미니 상 수상작으로 정신분석이 뒤의 모험을 통해 인간의 욕망에 대한 블랙 코미디를 선보인다. 첫사랑을 구하기 위해 잔혹하다고 소문난 디판에게 여자를 바치려는 뒤로 잇따른 실수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되면서 황당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난다. 〈현대문학·1만2천원〉



▲이우일, 카리브 해에 누워 데킬라를 마시다=만화가 이우일이 아내와 딸과 함께 중앙 아메리카를 방문한 기록을 펴냈다. ‘카메라 만 들어대도 그림이 되는’ 쿠바의 아바나를 비롯해 멕시코 칸쿤과 멕시코 시티 여행기가 소개된다. 〈예담·1만원〉



▲소피 리스트=유럽 미술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삽화를 소재로한 잉게보르크 프리어의 소설이다. 예술사가였던 소피 퀴퍼스의 아들이 바실리 칸딘스키의 ‘죽음 NO.1’ 등 미술품 13점에 대한 소유권 소송을 제기한다. 〈자음과모음·1만3천700원〉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생각참고=19세기 문인 홍길주의 저서 ‘수여방편’ ‘수여연필’ ‘수여단속편’을 정민재가 번역한 것으로 오늘날 블로그처럼 그때 그때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적은 것이다. 직접 경험한 것과 당시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일화를 통해 19세기 지식인들의 생활을 이야기한다. 〈돌베개·2만5천원〉



▲오만과 편견 그 후의 이야기=제인 오스틴의 인기작 ‘오만과 편견’의 주인공들은 그 후 어떻게 살았을까. 광범한 주부였던 린다 버틀은 원작에 매료돼 4년간의 준비 끝에 속편을 내놓았다. 엘리자베스와 다아시의 신혼생활로 전개되는 속편은 미국에서만 10만부 이상이 팔리며 인기를 얻었다. 〈루비박스·1만2천원〉

7급 공무원 남여 경찰직 공인 중개사

- 서울시 : 10월 1일 932명 공채대비
- 선관위 : 9월 24일 100명 공채대비
- 정규이론반 문제풀이반
- 일반경찰, 해양경찰, 101년경찰반
- 정규이론반 문제풀이반
- 경찰시험전문 강사로 100% 합격목표
- 9월 최종정리반(핵심요약+문제풀이)
- 9월 1개월간 전과목 정리
- 10월 개별학습의 극대화

40년 전국최고의 전통 · 노량진·광주·울산·스타팀 출강 · 청강후 등록(강의만집)

전남고시학원 www.Chonnamgosi.co.kr

전남여고맞은편 광주동부서당 ☎(062)222-5105

곽내영고시학원

“교원임용 강좌에도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풀이반 개강 9월 2일 (현재 예약접수중)

- ▶ 교육학/학내영 선생
- ▶ 수석/임대성 교수
- ▶ 생활/김지옥 교수
- ▶ 체육내용학/김용호 교수
- ▶ 유아교육과정/임미선 선생
- ▶ 국어/최병태 교수
- ▶ 과학교육론/정영민 교수
- ▶ 지구과학/박경순 교수
- ▶ 체육교육론/조남용 교수
- ▶ 초등교육과정/위재권 선생
- ▶ 국어교육론/미운용 교수
- ▶ 물리/장영민 교수
- ▶ 사회교육론/김형수 교수
- ▶ 미술/김성희 교수
- ▶ 영어/송욱 교수
- ▶ 화학/이영철 교수
- ▶ 일반사회/김형수 교수
- ▶ 음악/박성선 교수

전국 최강의 강사진만을 모았습니다.

수강문의 : 062-529-0090 전남대 정문앞(신안사거리) http://www.naeyoung.com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현대직업전문학교

[최고 교수진, 일한 교육, 최상의 시설]

유료과목	교육내용	개강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1차 8월 10일 : 오전/오후/이간 2차 8월 22일 : 오전/오후/이간
재직자과정	교육내용	개강
공인중개사	민법, 부동산학개론 1차 중점반	7월 22일 주말반
주택관리사	회계, 실무, 법규	8월 5일 주말반
정보화기초-1	윈도우, 인터넷, 문서편집활용	8월 개강
정보화기초-2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8월 개강
사무자동화	문서편집활용,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상당후개강

기타사항

- 고용보험기금 지원, 각 과정별 25명 (선착순 정원제 모집)
- 수료 후 100~80% 환급
- 수강절차
- 훈련 상담 ▶ 훈련수강신청서작성 ▶ 훈련기관에 제출 ▶ 수강

문의 : 224-4560, 236-2467

공무원 여름방학 2차 개강

- 첫진도 시작반(이론반) 8월 1일 (광주유일 B반)
- 문제풀이 8월 1일(서울직 선관위 대비)
- 경찰직 이벤트 무료교재(138000), 10월 1일 시험대비 문제풀이 무료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 222-4560

hanbitgosi.co.kr

“10월 1일 서울시” “9월 24일 선관위” 시험대비

7급 문제풀이반 개강 8월 11일

2차 : 9월 1일 예약접수

한빛공무원학원

북구청 건너편 전남대 후문앞 ☎ 234-0234